

영원을 빛은 조각가 권진규 그의 작품을 다시 마주하다

“내가 혼을 부어서 만든 흙의 아들은 영원히 살 수가 있다.”
고(故) 권진규 조각가(1922~1973)는 생전 막내 동생 권경숙 여사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곤 했다. 흙으로 만든 그의 ‘아들들’은 세월을 건너 지금, 우리 곁에 있다. 평생 잊지 못한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로, 원시동물에게 만날 듯한 동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모습으로, 가사를 걸친 자신의 모습으로.
낮게 조명이 깔린 전시장에서 만나는 작품 한 점 한 점은 오래 발길을 붙잡는다. 돌이나 브론즈보다 더 오랜 생명력을 갖는 테라코타에 몰두했던 그는 “작가로서(테라코타 작업이) 재미있다면 불장난에서 오는 우연성을 작품에서 기대할 수 있고, 브론즈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탄사람(끝소질하는 기술자)에게 가는 게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고, 전시에서는 바로 그 테라코타 작품과 생의 후반기에 몰두했던 건칠 작품의 진수를 ‘오롯이’ 만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에서 열리고 있는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전-영원을 빛은, 권진규 전(10월23일까지)’은 한국현대 조각의 선구자 권진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전시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천재’ 이미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도자처럼 작품에 매진했던 그의 예술혼을 대면하는 자리이기도하다. 유족이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열린 이번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이 공동 주최했다.
화제를 모았던 서울전에 이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작가가 생애 전반에 걸쳐 제작한 조각 작품 120여점과 아카이브, 드로잉 50여점 등을 만나는 대규모 기획전으로 기증작품 뿐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가나문화재단, 개인소장자 작품을 아우른다.
전시는 종이에 잉크로 그린 드로잉 ‘자화상’(1956-57)으로 시작한다. 함흥 출신인 그는 1947년 이태도가 운영하는 성북미술연구소에 다니면서 미술가의 길로 들어선다. 이후 1949년 29세 되던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전
10월 2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자화상’ ‘여성인물상’ 등 170여점
드로잉복 등 아카이브 자료 전시
유족 인터뷰 동영상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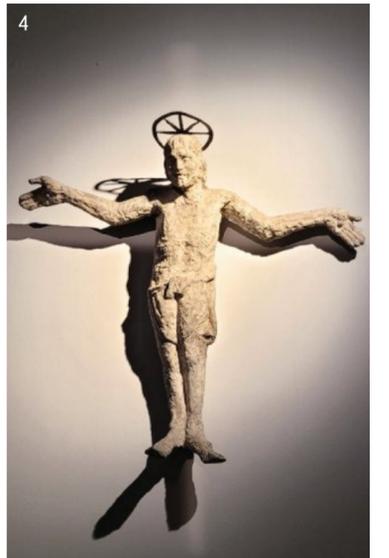
해 일본 무사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해 앙투안 브루델을 사사했던 시미즈다카시의 가르침을 받고 일본 이과전(1950년) 최고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부친의 타계로 한국에 돌아온 그는 작업에 매진하지만, 미술계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이상’과 ‘영원’을 추구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권진규의 대표작은 ‘여성 인물상’이다. 이번 전시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작품들이다. 집에서 일하던 ‘영희’,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아 제자가 된 서양화가 ‘이선자’, ‘정제’ 등 자신이 ‘잘 아는’ 이들을 모델로 삼아 작품을 제작했다.
그는 겉모습이 아닌 모델의 근본에 침잠해 들어가며 ‘본질’을 표현하려 애썼고, 그 느낌은 작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은 각기 다른 ‘인생’을 품고 있으며 그 중 스킵로 머리를 감싼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지원의 얼굴’(1967)은 대표작으로 꼽힌다.
또 같은 대학 학생으로 첫사랑이자 아내였던 일본인 오기노 도모가 모델인 ‘도모’(1951)는 권진규의 현존 작품 중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애뜻함이 묻어난다.
동물상(象) 역시 그가 즐겨 작업한 소재다. 초창



1. '지원의 얼굴' 2. '손' 3. 권진규 작가의 다양한 동물 조각 4. '십자가 위 그리스도'

기의 ‘마두’ 시리즈부터 고양이, 개, 소, 뱀 등 다양한 동물을 아우른다. 서울전에서 화제를 모았던 BTS 리더 RM의 소장품 ‘말’은 이번 전시에서는 빼졌지만 독특한 조형미를 선보이는 ‘서 있는 말’, 권작가가 존경했던 이종섭의 ‘황소, 1954’에서 영감을 받은 ‘황소, 1972’, 허리를 곧추세운 고양이 등 날렵한 움직임과 동적이 눈에 띄는 작품들은 인상적이다.
그가 아틀리에에 늘상 놓아두고 아주 마음에 들어했던 작품 ‘손’은 구부러진 엄지 손가락과 하늘을 향해 펼친 손바닥이 독특한 느낌을 준다.
2층 전시실에서는 교회 의뢰로 제작했지만 너무 어둡다는 이유로 예배당에는 걸리지 못한 ‘십자가 위 그리스도’가 열은 빛을 받으며 벽면에 걸려 있다. 일그러진 표정과 거친 피부에서 고뇌에 찬 예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테라코타, 은행나무, 석고 등으로 만든 ‘자소상(自塑象)’은 그의 인생의 면면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듯하다. 특히 자신을 슬그머니 형상화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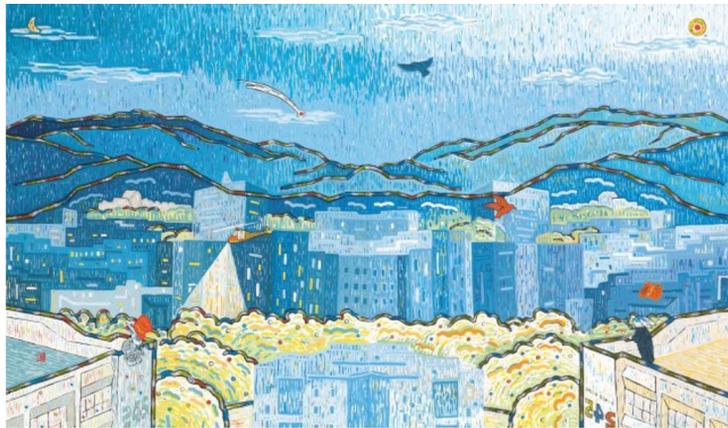
사를 걸친 자소상’은 보일듯 말듯한 미소가 인상적이다.
1·2층 통로에서는 그가 직접 설계한 권진규 아틀리에(국가등록문화재 제134) 사진을 만날 수 있다. ‘절간의 마당처럼 깔끔했던’ 소박한 작업실은 유족들이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 기증했다.
방대한 드로잉도 눈길을 끈다. “드로잉을 그림으로써 조각의 진상을 알 수 있으며 그곳에서 조각이 나온다”고 말했던 그는 모두 29권의 드로잉복을 남겼고 한시, 일본시, 러시아 소설, 음악이론서 등 다양한 책을 섭렵했다.
전시에서는 낡은 느낌까지 그대로 재현한 복제 드로잉복을 일일이 넘겨가며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또 작가의 테라코타와 건칠 작품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도 제작해 보여준다.
전시장을 방문하면 두 편의 영상을 꼭 관람하길 권한다. 오랜 시간 함께 살며 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권경숙 여사의 육성을 통해 지금은 없는 권 작가의 작품 세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권 여사는 누구보다 한국의 토기를 사랑하고, 어디에도 내어놓지 못한 마음을 드로잉복에 시와 글로 남기고, 조각들에게 흙을 밟는 즐거움을 주고, 아내 도모와 10년만에 재회하지만 ‘바보’라고 말하며 울며 떠난 그녀를 잡지 못한 오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준다.
또 한 편은 줄곧 외삼촌과 살며 아틀리에를 드나들었던 권 여사의 아들 허명희 고려대 명예교수의 영상으로, 그는 외삼촌의 작업과 인생을 ‘물입’이라는 단어로 정의했다.
인터뷰를 보고난 후 ‘다시’ 작품 앞에 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온다. 오전 10시~오후 6시. 무료 관람. 월요일 휴관.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관계와 변화, 그리고 내면의 투영’

이두환 초대전, 9월4일까지 전남대병원 CNUH 갤러리



관조

금까지 9차례 개인전을 진행한 이 작가는 광주시 세밭까마귀회 등에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은 환자와 보호자의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매달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8월에는 한국화가 이두환 작가 초대전(9월4일까지)을 병원 1동1층 CNUH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관계와 변화, 그리고 내면의 투영(投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작품전에서 이 작가는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풍경작품과 인물화 등 14점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한국화의 전통적 기법과 화려한 색채에 다양한 도상을 접목, 인간의 양면성과 그 안에 감춰진 내면적 자아를 표현한 회화작품을 선보인다.

본이다.
이 작가는 작품 속에 동물과 식물, 모자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 대인관계의 어려움, 관계 맺기의 소용 과정 중 느낄 수 있는 소외감, 관계의 복원 등에 대해 고민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해낸다.
또 한국화의 채색 안료와 두꺼운 장지 등 전통적인 재료를 활용함과 더불어 파스텔톤의 화려한 색채와 여러 가지 도상의 혼합을 통해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전남대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 및 동대학원을 수료한 이 작가는 한국화특장전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광주문화예술상 의재 허백련 미술상 특별상을 받았다. 지

‘지역 어문학 연구 창조적 방향 모색’

전남대, 12일 국제학술대회...4개국 학자 10명 참석

‘문화도시 광주, 백가쟁명’

광주문화재단, 시민문화정책 토론회...25일 시청 시민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태국 등 4개국 10명의 학자들이 각국의 지역어문학 연구의 창조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BK21 FOUR 지역어문학 기반 연구단’이 제3회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12일(오전 9시 50분) 인문대 1호관 김남주 기념홀에서 개최한다.
다중심 사회와 지역어문학의 (탈)경계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과 미국 등 모두 4개국 10명 학자들이 참석한다. 이들 학자들은 각국의 지역어문학 및 한국학 연구 동향과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지역어문학의 (탈)경계와 근현대적 삶의 이행들’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장일구 교수 등의 발표가 2부는 ‘지역어/한국어의 실현 양상과 국내외 교육의 현장들’을 주제로 전남대 조경순 교수, 하노이국립외대 우엔티하이장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마지막 3부에서는 ‘학문후속세대 지역어문학 연구의 상상력(들)’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학문후속세대 3명이 발표한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 온라인 입장은 ZOOM(ID: 916 6722 6180 / PW: 235137)을 통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추추전국시대 제작백가들의 각각각색의 학문을 논평하는 일을 ‘백가쟁명(百家爭鳴)’이라 했다. 이를 토대로 학문과 사상이 더욱 융성한 발전을 도모했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정책 아젠다를 시정에 개진하기 위해 시민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명 ‘문화도시 광주, 백가쟁명’으로, 오는 25일(오후 7시) 시청 1층 시민홀.
이번 토론회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협력해 일반 시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문화정책 네트

워크 구성원들 토론을 매개로 의제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재단은 지난 5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문화정책 네트워크 30명을 구성했으며 이후 전일빌딩245 등에서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백가쟁명 토론회는 사전 신청자 100여명의 시민그룹이 10개 팀으로 나뉘어 7개 의제에 대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 참여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모집 링크에 접속 또는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리꾼 이숙영 ‘보성제 수궁가’

11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소리꾼 이숙영(사진)이 제 708회 목요일 열린 국악 한마당(11일 오후 5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보성제 수궁가’ 완창 공연을 선보인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이숙영은 국가무형유산 제5호 판소리 심정기 이수자로, 전남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전통음악회 이사장으로 활동하여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판소리 ‘보성제’는 조선 후기 명창 박유전이 전한 서편제 판소리에 조선시대 명창 김세종이 불렀다는 동편제 춘향기와 중고제를 융합시켜 전승되고 있으며, 전승되는 판소리 가운데 음악적, 문학적으로 정교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박유전 명창으로부터 정재근, 정응민, 정관진 명창에게 이어졌으며 활동지역이 보성이라 ‘보성제’라 이름 붙었다.
이숙영이 부를 수궁가는 명창 조상현으로부터 사사받았으며 이번 공연에서 전국 완창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무대는 청암고법전국대회 명고부 최우수상 수상자인 한사랑예술단 박상호 단장이 고수를 맡는다.
전석 초대. 매회 공연은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 서비스된다. 문의 062-350-4557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